

사람을 보는 눈

박 동섭: littleegan@gmail.com

야마가타 히로오(山形 浩生: 일본의 평론가, 번역가, 노무라종합연구소 연구원)씨가 일전에 노벨상수상자수를 정책목표로 사용하자는 발상에 대해 “나는 심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쓴 걸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다.

‘그것은 스스로는 인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라는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나는 일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노벨상수상자 그 자체보다도 연구와 업적을 왕립과학 아카데미와 맞먹는 견식과 주장을 갖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의 육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도 뭔가 노벨상에 비견하는 세계적인 상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아마도 무리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그러한 상은 모두 지위와 경력과 학벌내의 힘 관계로 결정되고, 하마평은 사전에 새어나오게 되고, 수상 그 자체를 목표로 한 로비가 횡행하고 결과로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시시한 상이 될 것이 뻔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문제이다(논점 마이니치 신문, 10월 31일)

(위 문장에서 ‘일본’을 ‘한국’으로 바꾸어 놓고 보더라도 위화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문제만 놓고 보면 한국과 일본의 사정은 많이 비슷하다.)

야마가타씨가 말한데로라고 나도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매우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사람을 보는 눈’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다.

누구한테든지 보이는 것이라면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라든지 ‘없다’라든지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극히 예외적인 견식이 높은 사람에게만 보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속어가 존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 온 것-(주: 대학교수를 뽑을 때 결국은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을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몇 편 실었는지)’에 기초해서 내려지는 평가의 정밀함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할지도 모를 혹은 성취해 낼 일’에 관한 평가의 개연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굵뜨고 아둔해 보이지만 언젠가 큰일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 사람은 꽤 위세가 당당해 보이지만 언젠가 큰 실패를 함에 틀림없다”; “이 사람은 순순히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자고 있는 나의 목을 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등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관한 예측의 확실함을 가리켜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예전에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불민함을 부끄러워한다고 말하고, 스스로 주눅이 드는 느낌을 갖는 것이 보통이었다.¹⁾

그런데도 이 풍조는 아메리칸 글로벌리즘-이 말은 국소적인(local) 보편성-과 똑같이 형용모순임에도-의 도래와 함께 소실되어 버렸다.

글로벌리즘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것’(누구의 눈에도 소위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가치를 재는 것이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은 글로벌리즘의 풍토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감지하는 능력을 아무리 높여본들 이 시대에서는 ‘사회적 능력’으로서 는 평가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능력 개발에 자신이 가진 자원과 힘을 쏟는 인간이 없어지는 것이 도리이다.

1) 삶에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스승들은 자신의 코앞에 마이크나 카메라가 없음을, 그리고 시야에 자신들에게 기울이는 귀 없음을 탄식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할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에서도 학교(물론 대학을 포함해서)에서도 기업 내에서도 ‘사람을 보는 눈’의 함양프로그램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게 되어 버렸다.

모든 경우에 우리는 판단의 옳고 그름에 관한 객관적 근거(말을 바꾸면 ‘수치’)를 요구 받는다(주: 교수업적 평가를 할 때 1년 동안 논문을 몇 편 썼는지; 학교에서 주최하는 워크샵이나 특강에 1년 동안 몇 번 참여하였는지 등).

따라서 수치를 갖고 나타낼 수 없는 ‘지(知)’는 지로서 인지되지 않는다(주: 더 나아가 객관적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지’를 사바나 시대부터 있어왔던 절대적이고 영원불멸의 ‘지’로서 생각해 버리고 만다-실은 그것은 「근대」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Evidence based라는 아이디어 그 자체는 물론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evidence에 근거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맹목적으로 믿어 버리는 것은 무지의 전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객관적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회·역사적 인공물(artifact-예컨대 수치나 통계 기법 등)로(도움을 얻어) 짚 수 있는 것뿐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른바 측정도구는 과학과 기술의 그 때 그 때의 ‘한계’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이다(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과학은 결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

현미경의 배율(倍率)이 낮았던 시대에는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후쿠오카 신이치(福岡伸一) 선생님의 『생물과 무생물 사이』를 읽어보면 세균보다 훨씬 작은 병원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과학자는 드미트리 이와노브스키(Dmitri Ivanovsky- Ивановский, Дмитрий Иосифович, Iosifovich Ivanovsky)라고 나와 있다.

그는 도판(陶板)을 사용해서 당시 현미경의 해상도로는 볼 수 없는 감염입자가 존

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19세기 말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와노브스키의 증명은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다(왜냐하면 당시의 과학기술 틀 안에서는 바 이러스는 ‘보이지 않았으니까’).

이와노브스키는 다름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이야기의 조리(이치)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정말 훌륭한 과학자라고 아니 말할 수 없다)

이러한 태도를 진정한 의미에서 ‘과학적’이라고 부른다고 나는 생각한다.(고양최씨가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그리고 불손한 과학관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뭔가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잣대(도량술)로는 잴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고 상정하지 않으면 ‘이야기의 조리(이치)가 맞지’않는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 추론한다.

‘존재한다’고 일단 상정하는 편이 이치가 맞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을 가설적으로 상정해서 언젠가 ‘이야기의 조리가 다음에 맞지 않게 될 때 까지’계속 사용한다. 이와 같은 사고의 흐름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과학의 룰이다.

이렇게 해서 분자도 원자도 전자도 소립자도 지금까지 ‘발견’해 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속박되어 있는 ‘수치주의’라는 병태(病態)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잣대로 잴 수 없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간주해 버린다.

똑같이 우리의 현재 자연과학에서는 ‘미래는 모른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관해서는 평가 가능하지만 반면에 ‘사람이 앞으로 이룰 것’에 관한 평가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앞으로 할 것’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높은 확률로 그것을 맞추

는 사람이 존재한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러한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눈앞에 존재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리소스의 중점배분에 성공한다면 “왜 그런 것이 가능한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왜 저런 사람은 시간을 플라잉 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물어야 하지 않을까?

일전에 어느 신문에 종교에 관해서 쓴 작가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그 작가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초능력’과 ‘영적능력’과 같은 것은 현재 존재한다 라고 썼는데 과학부의 편집위원으로부터 곧바로 클레임이 들어왔다.

그 클레임의 요지는 “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부언하라는 것이었다.

보통 같으면 “아 알았습니다”라고 대응을 할텐데 이 때 만큼은 ‘이건 아니다’ 싶어 거절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넣으라고 한다면 원고는 ‘게재불가’로 해달라고 말했다.

나는 그 신문의 사설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서명원고로 자설(自說)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존재한다’고 단언을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사념(私念)’이지 국민적 합의를 얻기까지는 아직 긴 여정이 필요하다.

이 작가의 이야기를 앞의 진정한 과학의 역할이라는 논리를 가져와서 설명하면 ‘그런 능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야기의 조리가 맞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는 자연과학의 골격에 기초해서 가설로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에서도 이러한 사례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하면 그 작가는 아마도 곧 바로 자신의 가설을 바꾸어 쓰게 될 것이다.

모든 과학적 명제는 그 때 그 때의 과학기술의(주로 계측기술의)한계에 의해서 규정된 잠정적인 가설이고(종종 계측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유효한 반증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버려진다.

‘초능력’이라든지 ‘영적능력’이라고 불리는 능력은 현재에 존재한다.

단 나는 그것을 특별히 스펙터클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잠재적으로는 누구에게도 있고 그것이 개화하는 계기를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만인에게 공유되고 있는 잠재능력이라고 하면 개발해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중점배분하는’것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의 성립과 조작방법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잘난 체하자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5만년 정도 전부터 인류의 선조들이 계속 해온 것이다.

단 최근 수 십 년 동안 미디어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디어 측의 사정이지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의 ‘영적감수성’이 놀랄 정도로 열화(劣化)를 거듭한 것에 미디어는 공범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신문은 그것을 조직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 TV는 그것을 ‘구경거리’로 폄하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본 흐름으로 돌리기로 하자.

한국인은 ‘사람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것은 한 발짝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 눈앞에 있는 사람의 현실의 말과 행동을 소재로 해서 그 사람의 ‘미래’의 어느 순간에서의 말과 행동을 생생히 상기하는 것이다.

특히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과는 다른 상황’에 놓였을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해서 선행사례의 막대한 축적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 수 년 후의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 정도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우리는 근거에 기초해서 ‘추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추리의 근거는 수치적으로는 제시할 수 없다.

그것은 추리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추리의 근거를 한정된 시간 내에 열거하기에는 그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셜록홈즈가 사건의 해결 후에 와트슨군의 질문

‘홈즈 왜 자네는 그가 범인이라고 알게 된거야?’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응 그건 좀 맘에 걸리는 게 있었기 때문이지’

그 ‘걸리는 것’을 단서로 홈즈는 진상을 밝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에 다다르게 된다.

홈즈에게 ‘걸리는 것’은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 없든지’ 혹은 ‘있지 않아야 할 것이 있든지’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들른 범행 현장에서 홈즈는 ‘있어야 할 것’과 ‘있을 리가 없는 것’의 방대한 리스트를 순간적으로 스캔한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홈즈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르크스와 베버와 프로이트가 세계의 모든 사건을 설명하면서도 ‘왜 자신에게는 세계의 모든 사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철학자 폴라니는 이것을 ‘암묵지(tacit knowledge)’라고 불렀다.

훗설은 ‘선형적 직관’이라고 불렀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상관없다.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보일 리가 없는 것’이 철학자들 눈에는 현재 보인다

라는 것이다.

그 ‘직관’의 구조를 해명하려고 선인들은 고생을 거듭 해왔다.

나는 그 선철들의 위업을 치하하고 고마워하여 적어도 ‘사람을 보는 눈’의 함양 프로그램 정도는 학교교육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심스러운 바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야마가타씨의 비관적 전망에 편든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이것도 또한 불가능한 기획인 것 같다.